

2015.6.24

메르스 대응 지침

- 혈액투석 의료기관용 -

질병관리본부 · 대한신장학회 · 대한투석협회

1. 대상

- 혈액투석을 하는 모든 의료기관

2. 목적

- 유지혈액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말기신부전증 환자는 주 3회 외래 혈액투석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‘자가격리’에 제약이 따르고
 - 면역력이 저하된 투석환자들은 밀접한 공간에서의 투석을 시행해야 하므로 감염병 확산이 용이할 수 있어
- 메르스 유행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메르스 전파를 예방하고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지침을 활용하고자 함

3. 주의사항

-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유행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투석 환자의 의료기관간 이동을 금함
 - 투석환자는 인공신장실 진료의사의 허가없이 타병원 진료를 금하고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도 시행하지 않도록 해야 함
 - 만일, 메르스와 관련된 투석 환자가 불가피하게 이송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관할보건소장과 협의 후 이송

- 주치의는 이송대상 병원과 반드시 사전 상의
- 타 기관으로의 이송은 감염위험이 없다는 객관적 근거(잠복기 해제 및 입원해제 기준 등)를 확보해야 함
- 인공신장실 내 의료진 및 환자, 보호자에게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
- 유지혈액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말기신부전증 환자들이 인공 신장실에 들어오기 전 **별도의 공간***을 확보하여 증상을 확인
 - * ex) 안심병원의 경우 ‘선별진료소’에서 시행
- 말기신부전증 환자가 인공 신장실에 들어오기 전 발열, 기침, 호흡곤란 등의 증세 등이 있으면 의료진에게 사전에 반드시 알리도록 안내
- 유증상자가 인공신장실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

4. 준비사항

- 가급적 비말감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인공신장실 환경 준비
 - 침대 간격을 최소 1.2미터 두도록 권장
 - 병렬구조의 경우 파티션을 설치하도록 권장
- 대기실에서의 환자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예약제를 시행하고 시간을 준수하도록 환자에게 교육

- 의료기관 내원시 확진(의심)환자와 접촉으로 ‘능동감시 또는 자가 격리자’ 로 분류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
- * 능동감시 : 메르스 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에 대한 노출정도가 적어 외출 등 일상생활은 가능한 자의 증상유무 등을 정기 모니터링하는 조치
- * 자가격리 : 메르스 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자를 독립된 공간에 격리하는 조치
-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들이 인공신장실에 들어오기 전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안내하여 감염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

5. 자가 격리자의 투석

- 자가격리 기간 중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증상의 발현 양상을 감시하며 격리 투석을 시행
 - 이를 위해 인공 신장실 내 격리실에서 혈액투석을 시행하거나,
 - 다른 환자들의 투석이 끝난 후 따로 혈액투석
- 투석이 끝난 후에는 철저히 소독
- 자가 격리자는 외래 투석을 받기 위해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교통편을 이용하여 병원에 내원하며, 투석이 끝난 후에도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차량으로 귀가하여 자가 격리
 - * 대중교통 이용을 불허함

5. 확진(의심) 환자 발생시 조치

- 인공 신장실 환자 중 ‘확진(의심) 환자’ 가 발생
 - 확진(의심)환자는 원칙적으로 혈액투석이 가능한 국가격리치료병상으로 이송
 - 관할보건소에서 시도 대책본부와 격리병상 보유 거점병원으로 이송계획 수립
 - 만일 격리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일 경우 자체 격리치료 실시
 - 격리병실로 투석장비를 이동하여 혈액투석을 시행
 - * 격리병상 외부 투석실로 이동하여 시행하는 것은 절대 금지
- 인공신장실에서 확진(의심)환자와 접촉한 ‘자가 격리’ 및 ‘능동감시’ 대상자에 대한 조치
 - 해당 환자 발생 의료기관에서 메르스 증상의 발현여부를 감시하며 ‘코호트 격리’ 치료를 시행 (해당 보건소와 정보공유)

※ 코호트 격리

확진 환자에 의해 이미 노출된 의료진들이 노출된 환자만을 대상으로 최소 14일 동안 메르스 발병이 없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노출되었던 인공 신장실에서 치료(투석 등)하는 것

6. 혈액투석시 감염예방 및 관리

- 의료진은 개인보호장비 착용 (N95 마스크 이상의 호흡기 보호장비, 장갑,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, 보호복(Level D))
 - 환자 접촉 전·후, 개인보호장비 탈의 후 손위생 준수
 - 투석장비는 사용 후 제조사의 권고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
 - 격리병실 사용 후 절차에 따라 청소하고 청소 후 일정시간 비워둠 (시간당 12회 공기순환을 기준으로 30분 이상)
 - 혈액투석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처리
- * 이외의 사항은 메르스 대응지침 3-3판, 메르스감염관리지침 1-2판 참조
www.mers.go.kr